



천주교 전주교구

# 전 동 성 당

주임신부: 여 혁 구 아우구스티노  
 보좌신부: 김 종 신 베 드 로  
 수녀: 송 영 미 울 리 안 나  
 수녀: 하 연 희 데 레 사  
 사목회장: 장 은 수 요 한

55044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사무실: 284-3222/ 팩스: 282-6232/ 애령회장: 010-8644-6007

www.jeondong.or.kr / e-mail: jdcatholic@daum.net

주일미사	· 토요일 저녁: 오후 6시(초중고등부) · 주일: 오전 5시 30분, 9시, 10시 30분(교중미사), 오후 5시(청년), 저녁 8시		<b>전 동 메 아 리</b> 	
평일미사	월~토: 오전 5시 30분 수·금: 오전 10시/ 화·목: 오후 7시			
순례자미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묵주기도: 오후3시30분)			
가정성화미사 & 성시간	매월 첫째 목요일 저녁 7시	봉성체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2시		
고해성사	미사 전 15분	유아세례 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예비자 교리반	일요일 오전 9시~10시 (교리교사: Sr. 송울리안나, Sr. 하데레사, 안득수마리오)	초등부 교리 토요일 오후 4시30분	중고등부 교리 토요일 오후 5시	

## 입당송/영성체송

입당송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 - 다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 - 서 주님의 별을 보 - 고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 - 노 - 라

보라 우리는 동방에서 만군의 주님이 오신 다  
 주님의 별을 보 고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 - 노 - 라

◎제1독서: 이사야서 60,1-6    ◎제2독서: 에페소서3,2.3- .5-6    ◎복음: 마태오 2,1-12

◎화답송: Fine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 하리이다

◆ 오늘의 말씀\_주임신부

“공헌=드러내심=사랑”

오늘은 주님 공헌 대축일입니다. '공헌'이란 '공적으로 나타내 보인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신 날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늘 머리를 들어 하늘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다보았습니다. 별자리를 관찰하던 중 구세주의 탄생예고를 접하게 되었고, 먼 길을 달려와 구세주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머리를 들지 않고 밑만 바라보며 살았다면 살아생전에 결코 구세주를 범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이나 성과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와 대사제, 율법학자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 등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랬기에 예언자들을 통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밑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는 계시는 구세주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리석게도 구세주를 죽이려 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구세주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고 찾아와 경배하는데, 가까이에는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구세주를 죽이려 해, 더 큰 죄악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꿈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별자리를 통해 동방의 박사들에게 구세주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세주를 알려주시고, 제대로 잘 사는 법 등을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주 머리를 들고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소중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잘 간직하며 키워야 합니다. 동방의 현자들은 황금, 유황, 몰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이처럼 주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늘 하느님으로부터 받기만 해서도 안되고, 늘 하느님께 청하기만 해서도 안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재주와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켜 하느님의 사업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황금이요 유황이요 몰약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크나큰 사랑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 레지오마리아에 훈화(1/7~1/13)\_주임신부

\*\* 진정한 겸손 \*\*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마태 23, 12)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자신을 낮추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 첫째, 무조건 사양하는 삶이다.
- 둘째, 어디를 가든 늘 구석진 자리에 청승맞게 앉아 있는 것이다.
- 셋째, '누가 칭찬을 해주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 넷째, 늘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고, 아래를 보면서 다니는 것이다.

위 네 가지의 모습들이 진정 자신을 낮추는 모습인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당당한 자세입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필요 없이 허황된 모습을 보이며 살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보다 쉬운 말로 하면, “뺨을 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높여 세우거나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겸손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체하고, 약하면서도 강한 체 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겸손한 삶, 낮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진정한 겸손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힘 없다고 해서, 또 가난하다고 해서 결코 소심하게 살지 않으셨고, 비굴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면서도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진정한 겸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 행 사 이 모 저 모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미사 (집전: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님) (2019.1.1.)



△ 교중미사 후 전신자 떡국 나눔잔치

송철 옛날국수공장	일송정 (갈비명가)	최복순쌀상회	현대옥 아중직영점	전주농약사
3대를 이어온 국수명가 <b>송현귀(요 한)</b> <b>최금호(요안나)</b>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 서로 137-5(남부시장 건너편) ☎284-1908 H.P. 010-8951-2208	갈비탕, 옛날갈비찜, 갈비전골 명품한우 전문 <b>김문식(베드로)</b> <b>심 데레사</b> 완산구청 사거리(중산초방면) ☎223-9393 H.P. 010-3653-7853	쌀, 잡곡, 소금일절 <b>김동주(바로로)</b> <b>장현숙(세레나)</b> 전주시 남부시장내 ☎284-3194 H.P. 010-3675-3194 H.P. 010-8627-3713	콩나물 국밥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맛 <b>손주경(니콜라오)</b> ☎284-0099 H.P. 010-3366-7575	<b>황인수(요 한)</b> <b>김효순(루치아)</b>  전동성당 건너편 ☎287-4900

동래분식	남문&mail.남문문구센터	풍남문 찰쌀씨앗 호떡	퍼스트키친.금동물류센터	웰빙 만나초밥
새알팔죽, 팔갈국수, 손수제비 남부시장내 30년전통, 30년전골집 <b>양명구(다비드)</b> <b>이정미(세실리아)</b> ☎288-4607 H.P. 010-3672-0166	문구문화, 문구중심, 문구생활  <b>원수관(아고버)</b> <b>심경이(마리아)</b> 전주시 보건소 옆 ☎283-3352	호떡 · 오뎅국물 <b>표덕화(데레사)</b> <b>황선철(토마스)</b>  풍남문 로타리 H.P. 010-4651-6993 ☎232-6993	학교용, 주방용 그릇 전문업체  <b>장순문(프란치스코)</b>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709-7 H.P. 010-7657-1606 ☎284-5627	초밥, 우력탕, 생선회, 회정식, 회덮밥 <b>허 재익</b> 전주남문약기 옆 ☎예약문의 : 232-7425 H.P. 010-3277-7971

# 전 동 계 시 판



- 오늘은 제대 꽃봉헌의 날입니다.
- 판공성사표 없이 성사를 보신 분은 사무실에 알려 주세요
- 2018년 교무금 납부와 함께 2019년 교무금 책정을 바랍니다.

- 성서40주간 강의: 1/9(수) 19:30, 1/10(목) 10:00
- 유아세례: 1/12(토) 17:00  
\*사무실에 1/8(화)까지 신청바랍니다.
- 기부금 납입증명 신청: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례자를 위한 묵주기도 & 미사(주일미사 대체)  
\*매주 토요일 오후4시(미사30분전 묵주기도)

## 【금 주 모 임】

- 요셉회-교중미사 후/ 애덕의모후Cu.-13:30
- 독서단-17:00
- 애령회-1/8(화) 11:00/ 헌화회-1/8(화) 13:30
- 전례해설단-1/8(화) 19:40
- 예루살렘회-1/9(수) 11:00
- 순교자현양회-1/11(금) 12:00
- 사베리오화-1/11(금) 19:00, 자모화-1/12(토) 19:30

### ◆ 초·중고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모집합니다.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284-3222)

### ■ 첫순교터 후원회원 현황

첫순교터 후원회원(1월4일 현재)	531 명
후원회원 목 표	10,000 명

우리들의 정성 (12월24일~12월30일)		
· 주일헌금:	4,632,800	· 교무금: 5,537,000
	조병욱(십자가의 성요한)	100,000
	유정순(수산나)	25,000
	고석환(요한)	30,000
· 감사헌금:	오병욱(야고버)	100,000
	이금이(마리아)	100,000
	박봉재(데레사)	100,000
	고 장남일(베드로)	100,000
	미리암성가대 지휘자	300,000

※ 교무금 자동이체 계좌:

신협 134-001-130673 천주교유지재단

### ★첫순교터 후원회 회원모집★

- √ 회원구분:  정회원(월 1만원이상 납부)
- 특별평생회원(일시불 100만원 이상 납부)
- √ 납부방법:  직접납부(사무실)  계좌이체  CMS 후원신청서 작성  
(계좌번호: 신협 131-019-740164 / 예금주: (재)천주교유지재단)

일 시	차 주 미 사 전 레 안 내				
	5시 30분	9시	10시 30분	오후 5시	저녁 8시
해 설	이윤이안젤라	정태순마리아	홍선의프란치스카	청년	황해경미카엘라
독 서	김관식율리오 유향자베로니카	최세호타대오 여운녀로사리아	최인선세례자요한 방갑남율리안나	청년	이정재요셉 김숙경말가리다

정창희 정형외과	수진가 약국	가은노인복지센터	하늘해외여행사	갯마을회관
뼈, 관절 물리치료실 의학박사 전문의 정창희(안셀모) 이성숙(안젤라) 전동성당 건너편 ☎284-2926, 288-1625	약사 이현명(사도요한) 약사 신지현(베르베두아) 중앙성당 인근 (구한양예식장) ☎272-8066	주·야간보호,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한삼숙(베로니카) 김정민(데레사)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 H.P.010-3621-6007 ☎282-9241	성지순례 해외여행 전세버스 최석재(스테파노) ☎286-9595	해물탕, 아구백반 이한금(분다) 남문약기사 앞 H.P.010-3684-3339 ☎282-0876, 282-1289